

넷플릭스 '킹덤' 대만판 제목 한국 비하 논란



넷플릭스 첫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2'의 대만판 제목이 한국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일

다. 곧 새로운 중국어 제목을 마련해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 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19일 오후 게재한 '킹덤2' 홍보 게시물에 '이씨조선(李屍朝鮮)'을 썼다. 앞서 '킹덤'의 대만판이 시즌1부터 '이씨조선' (李屍朝鮮)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한국 비하 표현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에서는 조선을 비하하는 표현인 '이씨조선(李氏朝鮮)'에 시체를 뜻하는 '시(屍)'까지 넣었다며 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을 의식한 넷플릭스는 전날 "킹덤의 중국어 현지화 제목을 바꾸기로 했다."며 "중국어 현지화 제목에 대한 의견을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결정했

다. 곧 새로운 중국어 제목을 마련해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씨조선'은 이씨(李氏)가 세운 조선이라는 뜻으로, 조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돼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이씨조선'이라는 말이 일본인이 만든 말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킹덤'이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공개된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원제인 'Kingdom'을 사용한다. 더러는 '죽음의 왕국' (Vương Triều Xác Sống, 베트남), '왕국의 비밀' (A királyság titkai, 헝가리) 등 원작 내용을 담은 제목을 사용하기도 한다.

'킹덤'은 '생사역'이라 불리는 한국형 좀비를 선보이며 전 세계에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조선에 역병이 창궐하고 좀비들이 들끓는 이야기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콘텐츠를 절묘하게 엮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월 첫 선을 보인 '킹덤'은 인기로 힘입어 지난 13일 시즌 2를 공개했다.

미 연예인들,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동참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에 동참했다.



(세계적 대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이기적"이라며 "우리는 젊기 때문에(팬장을) 것이라는 생각은 젊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유명 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15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집 안에서 '미니어처' 말과 당나귀에게 간식을 주며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 더 이상 식당은 안 된다"며 "모두 잊어버려라. 공공 모임, 식당...창박(모두) 집에 있으라."고 말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가능한 집에 있으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바보같은 것은 무시하라."며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적었다.

배우 데브라 메싱은 자신의 63만명 팔로워 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험을 물어보라고 권유했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도 트위터를 통해 "팬데믹

앞서 테드루트 아드하움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방탄소년단과 아널드 슈워제네거, 가수 케이티 페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에게 '손씻기 챌린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연기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s)의 올해 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연기됐다.

주최사인 디 클라크 프로덕션과 미국 NBC 방송은 17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내달 2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미뤘다고 밝혔다.

주최사 측은 "국가와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한 데 따른 것이다. 아티스트와 팬, 손님, 스태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새로운 날짜와 개최 장소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불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받았다. 특히 작년에는 주요 상 중인 하나인 '톱 그룹' 부문을 차지했다.

올해 후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숫자퍼즐 정답								
9	7	1	6	8	2	4	5	3
8	2	3	5	7	4	1	9	6
6	4	5	1	3	9	8	2	7
1	6	4	8	2	7	5	3	9
2	3	8	9	4	5	6	7	1
5	9	7	3	6	1	2	8	4
3	8	2	7	1	6	9	4	5
4	1	9	2	5	3	7	6	8
7	5	6	4	9	8	3	1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명품(名品)만 고집하는 자식으로 인한 애로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인생의 결실을 얻는 것과 같고 크게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일이지만 때로는 자식으로 인한 걱정 근심과 애로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어떤 중년 부인과 10대 후반의 딸의 문제로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따님이 타고난 팔자의 그릇을 보면 그래도 미인형의 사주가 되고 먹을 복도 있는 팔자가 됩니다. 또한 디자인이나 창작, 예술, 의류계통과 인연이 많은 사주가 되지만 사실 이런 사주는 세속적인 활동보다는 교육이나 공직(公職)이 잘 맞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딸은 주변에서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운(運)의 흐름을 볼 때 학교 공부에 전념하기 힘든 운의 흐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애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명품 옷만 사달라고 조릅니다. 명품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면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한다면서 우리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못하는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때때마다 사주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한테 기가 죽을까봐 안 사줄 수도 없구요"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아이의 성품이 원래 품을 잡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따님은 중년 이후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게 되고 평생동안 재물운도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지금 감수성이 예민한 시점을 지나면서 운(運)의 흐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솔직하게 집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조건 아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기 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앞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 학업에 대한 동기를 일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는 하지만 자식이 바라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아이를 위해 바람직한 부모의 처세라고 할 수는 없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